

전통문화 속에 담긴 조상들의 환경지혜를 활용한 초등학교 환경교육 방안

최종선(신영초등학교) · 최돈형(한국교원대학교)

합리적인 서양의 가치관을 토대로 한 근대화 과정을 선택한 세계 전역의 지역 경제와 공동체들은 그들만의 전통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잃어 가고 있으며 정신적, 사회적 빈곤, 심리적 불안정, 문화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다. 지구 전체적으로는 환경위기를 초래한 요즘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생명과 자연과의 공생을 중시해 온 우리의 전통문화 및 가치관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환경교육은 우리의 사회적, 환경적, 지리적,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환경교육으로서 환경 소양인을 길러 내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자국의 독자적인 전통문화 및 주변 환경을 활용한 외국의 환경교육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만의 독특한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는 환경 교육적 요소를 통해 환경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이 연구의 목적 및 내용·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상들의 전통문화를 환경교육 소재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초등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봄으로써, 전통문화 속에 담긴 조상들의 환경지혜를 활용한 초등학교 환경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 목적이다.

연구내용은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전통문화의 환경 교육적 가치를 탐구하고, 전통문화 속에 담긴 환경지혜를 분석하였으며 제 7차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에 제시된 우리 전통문화 내용을 살펴 그에 해당되는 환경지혜를 범주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상들의 환경지혜를 활용한 초등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프로그램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통문화 속에 담긴 조상들의 환경지혜를 활용한 초등학교 환경교육 방안을 탐색하였다.

개발 프로그램의 연구 범위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으로 한정하였고, 사회교과와 환경교육 간의 통합 교육을 위한 분산 식 접근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수업을 위해 선정한 탐방 소재지는 서울 국립 민속박물관과 경기도 한국 민속촌으로 국한하였으며, 인근 지역 및 타 지역 학생들의 민속촌 현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탐방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조상들의 전통생활 모습 이해와 환경지혜를 발견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 시기는 2004년 9월부터 12월 사이 이며,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체험학습 및 조사·탐구 학습 방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소규모 적용·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문화 교육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환경교육과 연결지어 활용한 통합 교육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친환경적인 생활양식과 소비양식을 학생들에게서 이끌어 낼 수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해 전통문화 속에 담긴 환경지혜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과거 조상들의 전통 생활양식 및 가치관에는 다양한 환경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조상들의 전통생활 속에 담긴 환경지혜를 활용한 초등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 결과 학생들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조상들의 환경지혜를 깊이 있게 인식하여 그러한 지혜와 슬기를 실생활과 연결 지어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환경교육은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측면의 범교과적 접근을 통한 통합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교과 및 교과 외 활동과 연관된 교육과정 속 전통문화 관련 환경지혜 분석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범교과적 접근을 통한 통합 환경교육이 학교에서 지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교사 혹은 학생용 환경교육 교재가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전통문화와 환경지혜에 관심 및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통·환경교육 관련 체험학습 및 지도 능력을 배양하는 교사 연수가 있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통 문화 관련 내용이 예전보다 많아졌으나 그 내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머무를 뿐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현명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우리들의 전통문화 역시 살아 숨 쉬는 존재로서 교육현장에서 제 역할을 해 줘야하며 환경교육과의 접목을 통해 그 가치를 더 빛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점점 전통문화와 환경교육을 통합한 교육에 대한 가치 및 중요성을 교사들이 진지하게 인식하여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